

노무현과 부시가 피랍 한국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즉각 철군 선언하라! 포로 교환 요구 수용하라!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가 보름을 넘기고 있다. 그 동안 피랍 한국인 23명 가운데 2명이 참담하게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21명의 안전 역시 여전히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처지다. 지난 보름 동안 피랍 한국인들과 그 가족들은 그야말로 생지옥에 있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피랍자 가족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살아남은 피랍 한국인들만은 부디 무사 귀환하길 바란다. 우리 반전 운동은 탈레반의 무고한 민간인 납치·살해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적 연대와 대중적 반전 운동 건설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태의 진정한 뿌리와 책임이 부시 정부가 벌인 '테러와의 전쟁'과 그에 동참한 노무현 정부의 파병 정책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부시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을 불법 침략해 7년째 점령하고 있고, 그 결과 수만 명의 무고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전쟁과 점령이 초래한 참상과 재앙 속에서 신음하며 분노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런 더러운 침략 전쟁을 돕지 않았다면 무고한 한국 민간인들이 납치·살해되는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노무현 정부는 피랍 한국인들을 구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국군을 즉각 철군하겠다'는 약속도, '미국 정부는 포로 교환 요구에 응하라'는 촉구도 하지 않고 있다.

탈레반은 피랍 사태 초기부터 '한국군 철군'과 '탈레반 포로 석방'을 일관되고 분명하게 요구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탈레반의 요구가 분명치 않다'느니 "몸값을 요구하는 것 같다"느니 하며 계속 시간만 끌어왔다.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판청을 부



리며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회피하는 동안 두 명의 피랍 한국인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

최근의 대통령 특사 파견 역시 사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치 쇼'였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옆차기

그럼에도 노무현의 특사 백종천은 부시가 있는 워싱턴이 아니라, 부시의 꼭두각시 카르자이가 있는 카불로 날아갔고 그나마 카르자이에게 포로 석방을 분명히 요구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옆차기' 시리즈의 극치는 백종천 특사의 파키스탄 방문이다. 파키스탄은 '테러와의 전쟁' 동맹국일 뿐 아니라 미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 내에서 오랫동안 탈레반 소탕 작전을 벌여온 국가다. 또, 최근에는 이슬람주의자들의 근거지 중 하나로 알려진 '불

은 사원'을 습격해 대규모 학살극을 벌인 바 있다.

지금 탈레반과 한국 정부 사이에 직접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태 해결의 전기 마련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피랍 한국인 석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노무현 정부가 지금까지처럼 한편으로는 '면피'할 구실을 찾는 데 골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요행'을 바라며 시간을 버는 데만 매달린다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또, 만에 하나 노무현 정부가 이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미국과 모종의 막후 거래, 예컨대 이라크 파병 연장 따위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재앙을 부를 범죄행위가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레반 포로 교환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아프가니스탄 점령과 파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오직 그럴 때만이 남아있는 피랍 한국인 21명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부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이번 피랍 사태의 뿌리와 책임은 노무현의 파병과 함께 '테러와의 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생지옥으로 만든 부시 정부에 있다.

따라서 최근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이 사태 해결에 나설 것과 포로 맞교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시위와 기자회견이 잇따라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 대사관을 찾아간 피랍자 가족들도 "인질 석방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우리의 움직임이 반미로 비칠까 우려하는 소리들이 있는데 ... 어떻게든 인질들을 살려야하지 않겠느냐"(피랍된 서명화 씨와 서경석 씨의 아버지 서정배 씨)고 말했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이것이 "비극마저 반미 선동의 소재로 써먹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말한다. 21명의 생명보다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것이 더욱 걱정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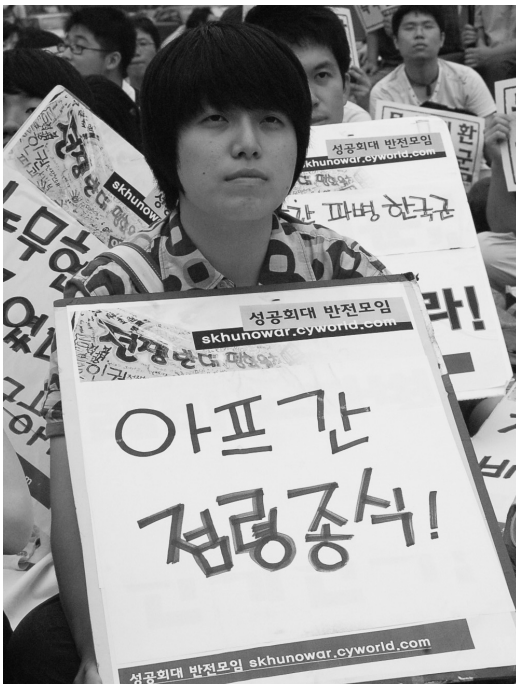
생지옥

반전 운동이 미국의 모든 것에 반대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다. 60퍼센트가 넘는 미국인이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다. 우리는 이들을 반전·평화 운동의 동료로 생각한다. 우리는 미국 정부의 제국주의적 정책에 반대할 뿐이다.

더구나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은 바로 한나라당과 이명박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던 이명박은 이번 사태로 여론의 눈길을 피하게 되자 바로 김재정의 고소를 취하시키고 일본으로 도망갔던 이상돈을 귀국시켰다.

한나라당은 '반미 경계론'을 펴면서도 5당 대표 미국 방문에 함께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번 일이 제2의 미션·효순사태로 변질까 벌써 겁이 나는 모양"이라며 불평했다.

범여권의 태도도 기회주의적이긴 마찬가지다. 이들은 한나라당과 손잡고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을 돕기 위한 이라크·아프가니스탄·레바논 파병을 추진한 장본인들이다. 그런 자들이 뻔뻔스럽게 '미국 역할론'을 들먹이며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미국 책임론'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반전·반부시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도 부시 정부와의 관계도



고려하는 줄타기를 하는 것이다.

청와대도 "이 문제는 반미로 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혹시라도 부시 정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봐 노심초사한다. 노무현 정부가 두 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미국 정부에게 탈레반 포로 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중동은 또 '반미 촛불시위는 탈레반이 바라는 바이고 오히려 인질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 피랍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은 부시 정부의 포로 교환 거부와 한국 정부의 즉각 철군 거부이다. 따라서 부시와 노무현에 맞서는 강력한 운동은 진정으로 피랍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다. 이탈리아 여기자 피랍 때 부시가 포로 교환을 묵인하며 물러서게 한 것도 수천 명이 참가한 반전 시위와 강력한 반전 여론이었다.

미국으로 찾아간 한국의 5당 대표에게 미국 정치인과 관료들은 "내 손자가 잡혀가도 탈레반과 협상하지 않는다"며 냉혈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보였다. "창조적 외교로 풀겠다"는 따위의 말장난만 하면서 말이다.

이 피도 눈물로 없는 전쟁광들을 물러서게 하기 위한 더욱 강력하고 거대한 반부시·반전 시위를 건설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점령 종식·포로 교환 요구 수용 촉구

집중 촛불 집회

8월 10일 금요일 오후 8시 세종문화회관 앞

주최: 파병반대국민행동 www.antiwar.or.kr

무차별 공습과 군사작전 시도 중단하라

미군과 나토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등 피랍 한국인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알 자지라>는 지난 2일 미군과 다국적군이 아프가니스탄 남부 헬만드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벌여 부녀자와 아동 등 3백여 명을 학살했다고 보도했다.

피랍 사태 초기부터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거듭 인질 구출 작전 가능성을 흘리며 탈레반을 자극해 왔다. 또, 한국인들이 억류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장갑차와 병력을 배치하고 군사작전을 예고하는 전단을 뿌리는 등 위험천만한 도발을 거듭했다.

심지어 두 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뒤에도 미국은 "탈레반이 인질들을 석방하도록 모든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고 ... 군사적 압력도 여러 수단 중 하나"(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남·중앙아시아 담당 차관보)라고 말했다.

도발

또, 사이드 자와드 주미 아프간 대사는 미국을 방문한 국회 5당 원내대표단에게 "한국이 인질 사태와 관련해 군사행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탈레반은 군사작전이 시작되면 인질들을 모두 죽일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탈레반 고위 사령관 한 명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이런 도발을 통해] 인질 전원을 한꺼번에 살해해 이번 사태를 일거에 끝내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작전 과정에서 미군의 공격과 폭격에 의해 인질들이 사망할 가능성도 크다. 인질 사태 전문가인 경찰대 이종화 교수는 "납치된 인질의 75퍼센트가 구출작전 과정에서 죽는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질 구출 작전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거듭 되는 미국 고위 관리들의 군사작전 가능성 언급은 물론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들은 "들끓고 있는 한국군", "인질 3명 희생에 그친 엔테베 작전" 운운하며 군사작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불 떼기'를 시도하고 있다.

인질 '구출' 작전은 인질들을 죽음으로 내몰 뿐이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그러한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하고 한국 정부는 그러한 시도를 분명히 공개적으로 반대해야 한다.